

서남권 거점 무안국제공항 시대 열린다



광주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무안 국제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무안공항 통합 의미와 과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통합된다. 8년 여를 끌어왔던 해묵은 민간공항 통합이 민선 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매듭지어졌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 등 다른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민간공항 이전과 동전 양면의 측면이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해법을 찾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20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선 7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첫 성과다. 그만큼 최대 현안인데다, 구체적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안건이기도 한 점이 주목된다.

◇광주·무안 공항 통합 공표 큰 진전=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큰 진전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이제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일한다.

광주·무안공항 통합은 2011년 1월과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중장기 계획고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군공항의 무안 이전 가능성은 전남도가 반대하면서 8년여간 지역 갈등만 부추긴 채 공회전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이후 이 시장 당선자 측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에 군불을 지피 새로운 돌파구의 신호탄이 됐다. 구체적인 내용, 시기가 최대 관심이었다.

이날 3개 자치단체장은 협약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통근 결

년 200만명 이상 항공 수요 창출 전망

광주시·전남도 이달 통합 실무협 구성

국토부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반영 주력

대중교통체계 개편·시설 확충 등 박차

정을 3자가 첫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상생협력발전의 첫 모범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도 "어렵게만 생각했던 광주·무안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됐다. 앞으로 2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항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거점공항 대비 기반시설 확충=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이날내 공항 통합 실무협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장 큰 작업 중 하나는 국토부 공항 중장기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시기에 대한 사도합의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을 건의하고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 반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중장기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민간공항 이전의 실질적인 업무는 공항공사로 넘어간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면 연간 200만명 이상의 항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올해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무안공항 항공수요에 대비해 공항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측이 현재 광주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비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협약대로 통합 이전까지 시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양 공항 통합시 무안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사·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이용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조기완공 및 주변 역사권 개발,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확보 노력에 공동 대응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 공항 중장기계획 변경이 가장 중요한 절차"면서 "통합 시기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공항공사에서 항공수요에 맞게 공항시설에 대한 재편이나 확충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공항 전담 이전도 통근 결단을= 광주시의 대응적인 결단에 대해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도 화답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 인사말에서 "광주 민간공항 통합은 오늘 MOU를 체결했다"면서 "군공항 문제도 전남이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방부와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고 이전대상 지자체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4자간 이전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 장기화

공론화위 구성 연기...9월말~10월초 공론방식 결정 무산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연기하면서 전반적인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찬바람이 불면(9월 말~10월 초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방식을 정할 공론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는 약속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안팎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체 시민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20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 발표를 유보하고 협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 방식은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공론 방식에 따라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며 기존에 알려졌던 9월 말, 10월 초라는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 중에는 공론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 광주시민이 공론화 위 결정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

라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론화위가 중립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도시철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시민들 중 '조직화된 일부'지만 (도시철도 건설에 찬성하는) 조직되지 않은 많은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보이는 세력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논의가 반대 의견을 내미친 단체들에게만 집중됐다는 것을 광주시가 인정할 셈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법률전문가 2명, 통계 전문가 2명,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공론화 경험자 2명, 여론조사 전문가 2명, 도시계획 1명, 인사사회 1명 등 모두 10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군을 확정해 현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에 통보했다. 이들 광주시와 시민모임 측에서 각각 2명을 제척하고 다른 2명의 후보를 각각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모임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보완 수사 착수

1차 수사 기간 종료로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특검은 20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보' 김모씨를 불러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박상용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지

사가 다시 소환되거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허 특검 등 특검 수뇌부는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등도 논의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지노선'인 22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올 탑승객 29만명...전년비 82% 증가

무안국제공항이 북적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탑승객이 82% 급증하면서 지난해 드리워진 '사드 먹구름'을 말끔히 걸어냈다.

이는 제주 노선이 확대되고, 중국 상하이 노선의 부활과 오사카·다낭·방콕 등 동남아 노선이 증편되면서다. 여기에 타이베이 노선이 추가 취항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전세기 운행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전남도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무안공항 여객기 운항편수는 20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2대)보다 66.9% 증가했다. 탑승객 수도 29만3199명으로 전년(16만1021명)보다 13만2178명(82.1%)이

늘어났다.

국제선 정기노선이 부활하면서 6만5207명이 이용, 전년(2만6053명)보다 150.3% 급증했다. 국제선 부정기노선 이용객도 9만87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5891명 늘어났다.

무안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이용객은 12만9278명으로 전년보다 79.2% 증가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사드 여파로 '정기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올들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년간(1~7월) 국제선 이용 현황을 보면 2011년 421편 4만6547명이 이용했던 무안공항은 2013년 6만4066편(603편), 2015년 11만4717편(875편)으로

4년만에 탑승객이 3배 가까이 경증 뛰었다.

지난해 사드 여파로 8만8876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로 16만명(16만3921명)을 돌파했다. 이대로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국제선 이용객 연간 30만명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이는 중국 동방항공이 상하이 정기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제주항공이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노선을 신규 취항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항공의 무안발 다낭 노선 탑승률은 95%에 육박하고 오사카(78%)·방콕(75%) 노선도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3~4시간 이동해 인천·김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안공항 취항 노선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직장인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무안공항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용객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평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25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